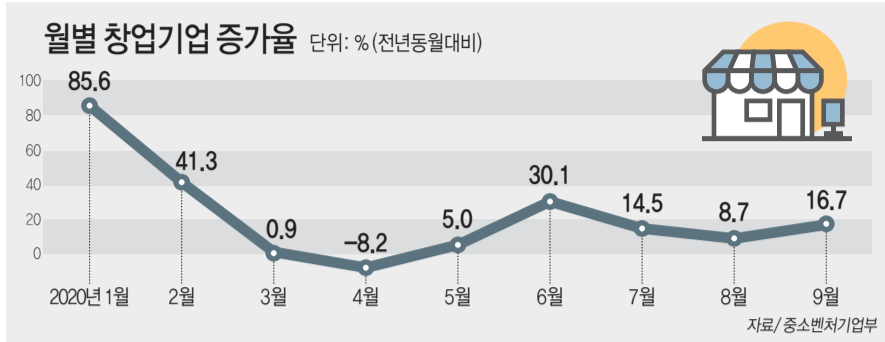


코로나도 못 막은 창업 열정... 청년층·비대면 창업 급증

3분기 창업 전년동기비 13.3% ↑
디지털·온라인분야 지속 증가세
전자상거래 소매업 71.7% 늘어
오프라인 위주 숙박업 등은 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도 국내 창업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디지털·온라인 분야 업종의 증가가 지속되며 창업 증가율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늘어 눈길을 모은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3128개로 전년동기대비 13.3% 늘었다.

지난 8월 중기부가 발표한 '상반기 창업기업 동향'에서 올해 상반기 창업기업도 80만9599개로 전년보다 16만

7111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상반기보다 26.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진 4월을 제외하고는 국내 창업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서비스업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정보통신업의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그 밖에 연

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창업도 늘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도소매업은 정보통신업의 증가에 힘입어 온라인시장 확대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71.7%로 정말 대폭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년동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26.8%인 점과 비교하면 44.9% 늘어난

수치다.

이어 박영선 장관은 "정보통신업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래밍과 같은 분야에서도 25.0% 증가했다"며 "소프트웨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창업은 지난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8.8% 감소했던 제조업 창업이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했다.

박영선 장관은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점차 개선되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프라인 사업장 위주의 숙박·음식점업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도 부

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 3분기 기준 창업은 같은 기간 2.5%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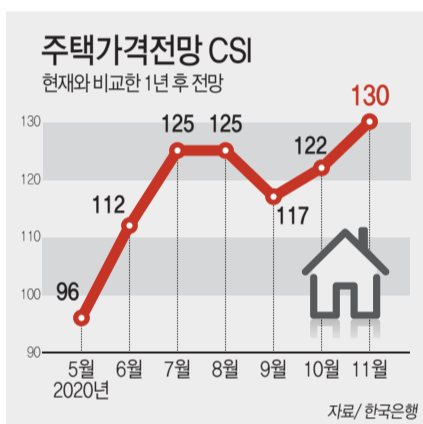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19.0% 증가해 전체 창업의 증가를 견인했다. 그중에서도 30세 미만의 창업이 29.9%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의 창업도 활발했다. 3분기 60세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창업률이 1~9월 기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30세 미만에서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업 등 디지털 비대면 분야의 창업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집값 더 오른다... 주택값전망지수 사상 최고

한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 유지
소비자심리지수 97.9 집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집값이 더 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전월(122) 대비 8포인트나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동향조사의 지수는 기준값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말한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경우 100보다 크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대안이 많았다는 얘기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96에서 6월 112로 큰 폭으로 뛰었으며, 7월 125에 이어 이달 130으로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7~8월 이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이 올랐고, 서울은 약간 오른세가 둔화했지만 전국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계자는 "향후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늘면서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실제로 추가 상승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

보다 6.3포인트 오른 97.9로 집계됐다.

CCSI는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다.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한다.

CCS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9월 79.4까지 하락했다가 10월 91.6으로 크게 반등했다.

이달까지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안정적일 당시 진행된 조사인만큼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사기간은 10~16일로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19일 이전이다.

구성 지수별로는 현재경기판단(72)이 14포인트 올랐으며 ▲향후경기전망(91) +8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4) +4포인트 ▲생활형편전망(94) +3포인트 ▲현재생활형편(89) +3포인트 ▲가계수입전망(96) +2포인트 등 모두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0년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채권 전문가 "한은, 기준금리 동결할 것"

금투협, 관련 종사자 설문조사
12월 채권시장지표 소폭 하락

국내 채권업계 종사자는 한국은행이 이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현 금리수준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1~17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조사해 '2020년 12월 채권시장지표(BMSI)'를 산출한 결과, 종합지표가 한달 전보다 8.8포인트 하락한 91.3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대선 이후 미국 경기 부양책 규모의 불확실성으로 12월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답변 인원의 응답으로 산출되는 BMSI는 100 이상이면 시장이 호전, 100이면 보합, 100 이하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기준금리 BMSI가 98로 전월(100)과 보합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응답자 98.0%는 11월 한국은행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0%는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전망 BMSI는 전월보다 6.0포인트 하락한 88.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소폭 악화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미국 재정·통화정책 확대 가능성에 따른 채권금리 상승 압력에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시장 변동에 연동된 모습을 보인다"며 "12월 국내 채권시장은 금리상승을 전망한 응답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62.0%가 금리보합에 응대해 전월(72.0%)대비 10.0%포인트 하락했고,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은 25.0%로 전월(17.0%)대비 8.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BMSI는 전월보다 14.0포인트 하락한 80.0으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곡물가격 상승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29.0%가 물가상승에 응대해 전월(17.0%)대비 12.0%포인트 상승했고, 물가보합 응답자 비율은 62.0%로 전월(72.0%)대비 10.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영 기자

'영끌·빚투'에 3분기 가계빚 또 신기록

한은 가계신용잔액 1682.1조 집계
기타대출 석달 간 22조 넘게 늘어

3분기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쭉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특히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의 경우 3분기 석 달 동안 22조원 넘게 늘어 작년 연중 증가치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6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말한다.

3분기 중 증가규모는 무려 44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분기 25조8000억원, 전년 동기 15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난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 4분기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주택매매, 전세거래가 활발했다"며 "다만 2016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원으로 3분기에만 39조5000억원이 늘었다. 역시 증가폭으로 보면 2016년 4분기(41조2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특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이 695조2000억원으로 3분기에 22조1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로 작년 한해 동안 증가규모인 23조1000억원에 육박한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4000억원 늘었다.

가계 판매신용 잔액은 9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으로 보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안상미 기자